조선일보 (第三種郵便物認可) 第一千五百五十四號

赤旗를번득이는 三百餘群衆의示威

道廳移轉問題로險惡하야가는晉州市民

시민대회준비와일반공직자의총사직 도령과지사관뎌에쇄도하야시위운동

흥분한진주시민(晉州市民)은적심단(赤心團)을조직하야구일밤삼백여명군중은 붉은긔와 등불을가지고 시내를도라단이며 도령과지사관뎌(知事官邸)에쇄도하야 크게시위 운동을하고 십일오후세시부터시민대회(市民大會)를열고자 준비중이오공직자(公職者)전부가 전부사직 하고 소방조합간부(消防組合幹部)가 사직하는등형세가 험악하게 되여가는중이더라(진주지국뎐보)

道廳移轉은 徹底한日鮮差別

오만의일본인을위하야서 일백삼십만조선인을무시

上京陳情委員 金甲淳氏談

석간긔보=경상남도도령을부산으로 이뎐하는문뎨에대하야 진주에서 진정하기위하야 상경한위원 金甲淳、鄭台鉉、淸水佐太郞、原田定造、壇尻庄市郞、姜周漢、高橋武夫、邊應煥、坂本誠二、姜潤永 등십일씨는 재등총독(齋藤總督) 하강정무총감(下岡政務總監)이 합석한자리에서 작일오후세시반까지 격론하엿스나 필경총독부의 태도는

긔뎡사실 만내세우고모호한답변을함으로결말이나지못하고 권긔십일씨는 작야열시차로 진주로도라갓다 위원중김갑순(金甲淳)씨는 분개한 태도로 정무총감의말이 부산은 경제(經濟)문화(文化)교육(敎育)교통(交通)의중심디인까닭에 대국상 그리로옴기게되엿다고 하나 이것은무엇을 표준하고하는 말인지 모르겟습니다 현재부산으로옴기는것을 찬성하는데는 일부오군(一府五郡)이오 釜山府 梁山郡 金海郡 蔚山郡 密陽郡 東萊郡

반대하는데는 일부십사군(一府十四郡)임니다 馬山府、昌原郡、昌寧郡、宜寧郡、咸安郡、統營郡、固城郡、南海郡、泗川郡、河東郡、山淸郡、咸陽郡、居昌郡、陜川郡、晉州郡

인구로보면 이뎐을 반대하는 편은일백삼십만인구인데찬성하는편은겨우오십만이올시다 첫재경제로볼지라도 만일일본인을 본위를하는경제라면 부산편이만흘는지 모르나 조선인의경제로보면 이편이얼마가만흘터이며 교육이나 문화의중심으로 볼지라도 진주는수백년력사가잇서서 잡힌터이오 부산은조취모산(朝聚暮散)하는데이며 더욱조선인문화라고는 볼것이업습니다 교통으로보면 멋멋총독부 관리가왕래하는데는부산이편할는지모르나 적어도인민을 본위로는 정치라면일도의행정긔관은당연히 도의중심디에잇서야 할뿐아니라 또삼개월안에는 진주의긔차가 개통될터인즉 이것도문뎨가 되지못합니다 일본의례를 보드래도 산구현(山口縣)현령이 반듯이하관(下關)에 잇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총독부에서

무슨까닭으로도령을긔필쓰고 옴기느냐하면 그것은겨우 편은일본사람이오만명이나살고이편은 몃천명밧게 안사닛가소수인 일본인을위하야 다대수인조선인의 생사를 무시함이니 이는철저한 일선차별이라우리가 이말을하닛가 총감은그럴리가 업다고하나 엄연한사실을 엇지합닛가 총독에게 최후선언으로만일도령을 긔어히 이뎐한다면 우리일부십사군은 총독정치에서 제외(除外)되줄로 알겟다하엿습니다 우리는 다른사람가티의회(議會)가잇는것도아니고 관리도 업스닛가 일부십사군이 결머질 속하야 련항폐하에 소원을하겟고한편으로 공직자총사직 납세불납동맹까지단행할듯합니다 하더라

總督背信

백성을속이는 정치에는복종할수업다

황자에도령이뎐문뎨로 진주시민대회가되엿슬때에 지난팔월에진정위원이 상경하야총독과면담한결과 총독은안심하고사업을진행하라해놋코 이러케변하는것은위정의수뇌자로백성을속이는것이라고더욱분개하더라

(忠淸北道永同郡陽化面樂東里)에사는 김두병(金斗炳)은 삼년전에그의부친이죽엇는바우연히자긔의 호적을도사하야 본즉자긔친형김두창(金斗昌)이가 사라잇것만 자긔가장자로 되얏슴으로 이것을 긔회로알고 즉시죽은부친의 유산을 컨부자긔명의로상속을밧은것이발각되야두형데사이에는분쟁이 닐히자이가업든바 일컨부터는 영동경찰서형사가현장에출장하야됴사에착수하엿다더라(영동)

戶籍에 兄弟誤記로

아우가형의재산을편취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조동리

新幕에新夜學

교원제씨가 명예로교수

황해도신막(新幕)은경의선중앙디로호수가 천여호에 갓가우나 생활상 곤난으로 상당한교육을밧지못한남녀아동에만흔듯을일반인사는항상유감으로생각하든바 동디유지 정두섭(鄭斗燮)씨는 그전부터 교육사업에 만흔노력을하야 오든중 금번에불상한아동을위하야 지난구월 십오일에 신막덕성학원(德成學院)안에서 야학회를 개최하고 남녀학생을 모집하야 오날까지 명예로교수하야온다는데 학생수는 남자부에오십명이요 녀자부에 륙십명에달한다하며 더욱히 집을떠나지못하는주부(主婦)들도만히입학하야 열심으로 공부하는중이라는데 교원은아래와 갓다더라

金瓚斗、趙錫俊、李永奇、金東箕、趙聖熙、崔聖建、盧基熙女史(신막)

所謂貴族의行悖

리완용후가하라비무덤을빙자하야민간연고림탈취

지난달야십오일에 충남도령 수뎐기사(守田技師)가 도기수와군기수를다리고 리완용(李完用)후의당질되는 리회구(李會九)의안내로 연기군전의면(燕岐郡全義面)사무소에와서 동면신정리(新井里)에사는 오봉룡(吳奉龍)씨를불러다안치고대정사년도에 대부허가를 바든산에는 리후작의선조분묘가 잇스니 도로내여노흐라고

권고도 하고을더대이기도하다가결국듯지아니함으로그러면직권으로취소하겟다고산야를실디됴사하다가 림야안에 묘포를설치하기위하야 약간긔간한곳이잇슴을보고 조림하기 위하야 허가를바더가지고 긔경하는것은 조림시행규측에 위반되엿스니 단연코허가를 취소하겟다하고 도령으로 도라간후 당자인오씨의 불평과 근심은날로더하야지고

일반의 여론이 분분하다함은 이미본보에 보도한바어니와 그후로각처에 그던말이엇지되얏는지 궁금히넉이여 본보조치원지국으로 물으러오는 사람이 매일답지하며 속히던말을보도하여달라고하는상태인데이것을보면 리후작의 무리한과도령관리의 행패가얼마나미약한 촌민의가삼을쌔아리게하며의심을밧는가를가히알것이다

貸付許可를 返還命令

소위공문의내용

권긔와가티 당사자오씨는 물론이오 일반이모다 자긔일과가티 도령의처분의 여하함을 주목하고 기달니든바 금월삼일부로좌긔와가튼 반환명령이 연기군령을 것처동월륙일에 권의면장의게로 컨달명령이 내리엇다

忠南勸第一五六七號

燕岐郡全義面新井里 吳奉龍

大正四年十月十日附忠南勸第四八二六號로貸付한燕岐郡全義面新井里山一一一番林野는森林令施行規則第十七條第一項第三號에依하야反還을命함

大正十三年十二月三日

忠淸南道知事石鎭衡(印)

그러면、삼림령시행규측、십칠조데일항、데삼호가 무엇인가?

『第十七條、左의各號의一에該當한境遇는貸付地의全部又는一部를反還케함
一、及二、(省略)
三、法令又는契約에定한事項에違反한時』

그리고 도령의지휘를바더 군령에서발한공문을 보면 오봉룡의 대부에 관한림야의용도는 조림임을불구하고 대부림야내에 긔간하야

경동디(新築地)로사용하엿슴으로 반환명령이 되야지령서(指令書)를 교부한다 하엿다 권의면사무소에서는딸일부로 그지령서를 오씨의집으로 송달하엿는데 오씨는마츰 경성방면으로볼일이잇서 수일컨에 가고 업슴으로 그가족에게컨달하엿다한다이말을들은동리사람들은 리후작이 무리하게 사욕을채우고저함은도리혀그다지비난치아니하고 다만일개인의 야욕소치로돌녀보내나 일개인을 위하야 법령을임의로 반복하는 도령관리의 비난은 중텬한중이다

불가튼手續 轉任說로

묘사후딸일만에명령권달 리후작이 사욕을 채우고저하야 부탁을 바더이와 가티십년동안이나 다대한 금권을허비하고로력을 들이여 조림한산야를쌔앗고저 설계한책임자는 지금암경남도 지사로 련임되야이딸일에출발한 원중남지사 김관현(金寬鉉)씨이다 수권긔사가실디됴사한 일자로부터 반환을명한다는지령서를 발부한일자 까지의

일수가 겨우구일간이다 물론무엇이면지 어와가려 속히커리하여주면 인민에게는 다행한일이나 어사건은 컨혀가

귀족가 외촉탁이닛가 그리한것이다 김지사가 자긔의 로던입되면 후임지사가 번복하라도 설계를 계속하여 울가?하야슬일월부로 각의(閣議)에서 고파의이동 발표가되는 동시 충남지사는 컨남(全南) 참여관석진형(石鎭衡)씨가영던되엿스나 부임하라면 아즉보뎜도쌔기권에 삼일부로 산야의반환지령서를 석지사의

명의로 하엿스니 몰론충남도지사로이동일에되엿스니가석지사의 명의를 사용하겟지만은 범어도 마른셈나누에를 부듯이 휘보라쳐서 리후작의사욕을채워주고저 한것이 분명하다

寃聲漲天

쌔앗기산람의극분 듯는사람들의비난

리후작의야욕충동으로김관현지사의 음모를거쳐서 마츰내미약한촌민오봉동의 대부림야를 반환명령까지 나리게된 전후던말은 권긔한바와 갓거니와 사람이사는 이세상!범률이 잇다는 이세상?에서 공공연히 이와가튼소위 귀족의 행패가심함과관권의 압박이 자행함을 일반은묵인하고말것인가? 엇이라고 형용할수 업슬만치홍흉한동시에 장차엇더한 문데가 이러날는지몰은다더라(조치원)

去處不明된區長

경관에게취됴밧다가거처불명 도평의회에서문뎨된이사건

데오회평북 도평의원회(第五回平北道評議會員)의데륙일까지의경과는 본보에 이미계속보도한바어니와 데칠일은 딸일오권열시삼십분에 개회하고 방비 세입세출 (地方費歲入歲出)결산서를토의하는중최경식(崔敬植)씨는현재보통학교 교유의불완비함을 절규하야 당국의각성을 촉하고 데딸일은구일오권열시에 역시개회하고 뎡윤옥(鄭潤玉)씨는 일본사람은 말마다일시동인(一視同仁)이니 공존공영(共存共榮)이니하나그실상은

금전에 만눈이벌개서년봉(年俸)얼마사택료(舍宅料)가 얼마 위로금(慰勞金)이 얼마에 만열중하고 조선인을위하야 물질혹은 정신으로 성의잇는노력이잇슴을볼수업스며소수의일본인소학생을위하야 소학교를써로설치하는것보다는다액의보조를 보통학교에 주어서일본인학생이부속하야배호도록하라고열렬히 부르지즈매 생뎐(生田)의장은 조선문신문의 주장하는바를잡고치말라는자못불쾌히역이는회답이잇섯스며 그날오후에는 리양우(李養羽)씨가평안북도경찰에서사용하는

법률은 특별한것인지는 알수업스나 작년칠월경에 벽동(碧潼)모 주재소에서는 모구장(區長)을 잡아다가 가혹한고문을하든중그후에그아들이주재소에가서자긔부친을차진즉변소에가서 돌아오지아니한다고 모호한답변을한후이쌔까지그구장의간곳을알수업스며 그외에 이로말할수업는 패악한 행패가만히잇슴을 극히분개하는 어됴로진술하야 장내의공긔는 심히봄안한가운데 동오후네시경에 휴회하엿다더라(신의주)

皇后行啓前日에 鐵道信號를破壞

악의를품은자소위라고 경찰은범인을엄탐한다

구월오후 열시이십분 정에일본정강정거정(靜岡驛)에서는그구내에 설치되엿든 신호긔(信號機)가 파손된것을발견하엿는데 그이튼날인 십일은 마츰일본황후폐하께서 통과하시는 날임으로 혹은 엇던자의 악의나아닌가하야 소관경찰서에서는 그범인수색이 매우 활동중이라더라(정강뎐보)

日人犯則者는

엇재처분이업다

충북진천읍내(鎭川邑內)에서조

市場移轉說로騷動

자긔개인의리익을욕심내여 이백여호주민을무시한다고

요사히 삼랑진(三浪津) 락동강시장 이컨문데 (洛東江市場移轉問題)의말경이 생기어서상인들과 D기라일부분은찬성하나삼랑리(三浪里)의주민일 무분이백여호는반대가격렬하야지난삼월에반대측주민사오십명이 모혀서 시장이던을주장하고운동하는박괴윤(朴基潤)씨의 집에 달려가서 권긔박괴윤씨가 잇스면크게야단을 하려하엿스나 마츰집에 업서는 고로그만도라오고 마랏는데 그날저녁에 권긔반대측주민들이 삼랑리(三浪津)박영오(朴永五)씨집에모히여권긔박괴윤을 불러다가 일대소동이 이러나서 큰분쟁이 잇섯는데그 당시에 권긔 박괴윤씨는 이와가티 주민들이 반대하는동시에는시장이던운동은권면중지하겟다하며 이백여명이 날인한진정서(陳情書)까지그자리에서살라버리엿스나

그래도 주민들은밋지못하게다함으로이 전부터는겸코이던운동을 하지아니하겟다는 자복서(自服書)까지 써서그동민들을 주엇는데 그이튼날부터 권긔박괴윤씨는 또시장 이던운동을하기 시작하야 각리로도라다니면서

진정서 에도장을밧기에로력하든중 지난칠일 아츰에송리(松里)에서도장을밧다가삼랑리동민에게 그진정서를 쌔앗기고마랏는데 그반대의 원인을들는즉 원래 삼랑리가생길쌔부터 시장이되야발서오륙백년을지내오는것을 권긔박괴윤 일개인의리해 관계로인하야 시장을이던하면 몃백년을 시장으로먹고사는수백명의 주민은 크게공황을당하게되는까닭이라더라(밀양)

殺人事件으로 不安한東萊

류언비어가류행

동래범어사(梵魚寺)살인강도범인은아즉까지 데포치못하야 경찰당국에서는 비상히 활동을하는중 무슨유력한 단서를잡은듯하며 이사건이이러난뒤로 북면송뎡리(松亭里)에 도살인강도가 횡행한다느니 남면해운대(南面海雲臺)에 도살인사건이 생겻다느니하야 무근한풍설이 돌아다니는고로 이디방인심은 매우불안하더라(동래)

證券을窃取하야

다라난일본청년

일본장긔현 동피저군 대포구도향(長崎縣東彼杵郡大村鄕)에원적을두고 방금서소문뎡(西小門町)삼십칠번디에 사는어주건차랑(御廚健次郞)의둘재아들광인(廣人)(一八)은칠일밤구시경에그아비의 궤에너허둔 유가증권(有價證券)을훔처가지고어듸로인지다라낫다는데그는최근에 모은행에다니는목촌모(木村某)와 가티도라다니든컬파또는명치뎡(明治町)동원식당(東元食堂)에 자조출입한일이잇서 그방면으로도사를하는모양인데 그밧에는 다수학과갓다더라

押收證書(御廚健次郞)

	…七〇圓
國庫債券貳枚	一〇〇圓
復興債券貳枚	一〇圓
勸業債券壹枚	一〇圓

亡夫의葬場에서 음욕한녀자

철원(?)에서는 청년조각가(彫刻家)천괴모(川崎某)의장식에서 그미망인되도미고(三)가자살는약을먹고 자살하라한 사실이발각되야 방금극비밀리에 치료중이나 생명이 위태하리라하며 도미고는부인으로 유명한소설가(小說家)谷崎潤一郞씨의종매라더라(동경뎐보)

野菜市場移轉과

문데되는 생선경매

인천(仁川)시내의어시장(魚市場)과 야채시장(野菜市場)을공설시장으로 … 사(仁川水産會社)에서는어선에서 싣고오는 생선을 모하가지고 경매(競賣)로 소매상에게파는데 공설시장이 되는날에는 시장규측에 위반이될것이라는바 이에의지하야 충분한 고려를 한후처리하겟다고 인천부 모당국자는말하더라 (권번긔사중 조선인어시장대표 정헌태씨 등이라고 세택씨 등의오식이기정오함)

不正米事件

지난구일오전 전주에서공판

일반의 이목을 놀내든 군산(群山) 부정미사건(不正米事件)은지난구일오전열시부터 컨주디방법원에서 개뎡하엿다더라(군산)

可憐한仁川罹災民

인천유지가구제에노력 뜻잇는이는본사지국에

인천만석뎡(仁川萬石町) 재등정미소(齋藤精米所)에서지난 륙일에 불이낫섯다함은 긔보와갓거니와 그엽헤살든 조선인의 집팔호가타서 리재민이 삼십여명이 생기엿는데 그중에는정미직공(精米職工)이 이십여명이나되는바수일래로치운바람은사정업시불어오고 흰눈송이는 산천을덥허서집업고 옷업고먹을것조차업는 이불행한사람들은 리거리에 방황하며 하눌을우러러 신세만한탄하는 참담한처디에 잇슴으로이를본 인천의유지들은 이사람들을엇더케하여 구제할가함에대하야

의론중에 잇스며인천자선회(慈善會)에서는금일에간부가 총동하야 리재민에 대한모든 구제사항을 됴사한후 백여원으로 구제에 노력할터이라하며 인천내리(內里)모 무명씨(無名氏)는 현금십원을 본사지국으로보내여 그들구제에 보태여 쓰라하엿는데 본사 지국은 이외에도 여러뜻잇는인사의 구제동정금이면 금컨과물품의 다소를가리지안코 취급 하겟슴으로 일반인사의 모든구제금품은 률목리(栗木里)본사지국으로보내주기를바라는바이다(인천)

反動團體를撲滅!

小作會를沮戱하는繁榮會

무안군지도소작인의소동

컨남무안군지도 소작회(務安郡智島小作會)에서는지난칠일오두시에 지도청년회관(智島青年會館)에서 간부회를 개최 하고량선묵(梁宣默)씨의사회로 제반사항을결의하엿는데 그내용은 원래그소작 간부로잇든 주판동(朱板東)량영협(梁永俠) 김재호(金在浩) 김종긔(金鍾基)등이 자긔의 의사에 맛지안는 일이 잇다고 간부에서자퇴하야가지고 지도소작회를 더희할 목뎍으로일본인 디주교본뢰뎡(橋本瀨貞) 내뎐우의(內田佑義)와협동하야디주소작번영회(地主小作繁榮會)란것을 조직하고또

각동리에 순회선전대를 조직하야 디주의요구대로 응치안으면 금년 소작료는 차압수속을 진행할것이며명년은 소작권을 이뎐할터이니 순종하라고야단치는 등에 소작인들은 임간부도 다소신앙하든 사람도잇는바이라 소작인의 심리는 혼란하여져서 지도의 소작운동이거의 파괴될디경임으로 신간부들은 이를크게 념려하야 긔급

간부회 청년회(青年會)면사무소(面事務所)와 소작공조회의합동주최로 십일에 면민대회를열고 반동단데인디주소작번영회(地主小作繁榮會)를박멸하기로결의한것이라더라

闖入暴行

경관은소작회 회원을구금해

繁榮會幹部가

지도소작회(智島小作會)에서는 지난달 이십삼일에 당디청년회관에서 림시총회를열고 여러가지사항을 토의하든중에 불연히 권긔번영회간부주판동(朱板東)김재호(金在浩)량영협(梁永俠)김종(金鍾)을 잔득마시고 동회석상에 쳐들어와서 동회장에 침입하야일본인디주와경관이서로 눈을주면서 동회석상에서 밭의 가생하는쌔마다소리를크게질러서의사진행상

방해가적 지아니함으로 회원김연홍(金連弘)씨가이러서서말하되 저번영회간부는 디주의게매수를 당하야가지고 디주의긔세로 이신성한회장에서떠드는것은 불상사이라한즉 장하엿든 경관은 곳해산명령을내리면서 권긔 김련홍씨를 금속하엿다는데 그내용은 번영회간부가개회컨일부터디주기

반동파와 련락하야당일회의를파괴하며소작간부를구타하야 모험든소작인으로 하야금 공포심을일게하자는긔괴한방책에서나온것이라관련되야디방인심은더욱소란하다더라(목포)

樓下洞火災

손해십여원

시내루하동(樓下洞)이백륙십구번디 유석우(柳錫禹)의 집에서 십일오후륙시경에불이나서일시는매우 위급하얏스나 다행히즉시진화하얏스며 원인은 굴뚝의 불완컨한까닭이엇스며손해는십원가량이라더라

三兄弟가燒死

일본후목현에서

일본후목현 안소군계촌(安蘇郡界村)복디의 집에서지난륙일밤 열한시경에 불이 이러나 그집은컨소 하얏스며그 집의장남장평(長平)(一五) 차남은장(銀藏)(八)세명은 무참히 죽엇다는 데원인은 권긔복디가 이웃집에 목욕간동안 그리된 것이라더라(우도궁)

長春에大雪

긔차가연착

중국장춘(長春)에는딸일부터오기시작한눈이 아즉도 끈치지안코 북만주 독특한 가루눈이 바람에 날리여싸혀서 십륙미리메돌에 달하얏는데 이와가튼현상은 권에업든현상으로 남만주본선(南滿洲本線)의 장춘착 렬차는 삼십분식 지체가되는중인데 농민들은풍년이라고 매우조와 한다더라(장춘뎐보)

大虎를잡아

금산강승운

권라북도 금산군남이면 흑암리(全北錦山郡南二面黑岩里)에사는 강승운(姜聖雲)은지난딸일진안군주컨면 화곡(鎭安郡朱川面花谷)이라는산골에서 범한머리를잡앗는데 기리가 륙척칠촌이나되는큰범이며구경군이답지한다더라

鴨江鐵橋에서 美人自殺未遂

텰교부설이후에 처음되는일이다

지난팔일 오후두시 십분경에압록강(鴨綠江)텰교데팔호교에서 묘령의녀자가 써러저서 두손과 얼골에부상을 하고 또둡혼데 서써러질때에는머리골이(頭腦)와 울려서혼도한것을남안(南岸)파출소순사가 발견하고 즉시우좌병원(宇佐病院)에 수용하야 응급치료를하엿스나생명이매우 위독하다는데 이제 자세한내용을듯는면 그녀자는 마렬사원평정익태랑(平井益太郎)의둘재딸『마스』(一七)라는녀자로이삼일컨에 자긔부모에게 꾸지람을듯고 마음이약한녀자인까닭으로세상을비관하고 그와가티 다리에서 써러저 자살하랴든것인데 압록강에서자살하랴고한것은텰교부설이래에처음되는일이라더라(신의주)

粉面強盜 犯人은逮捕

군산에서생긴사건

지난이일군산부(群山府) 명치뎡구번디 일인석뎐영장(石田榮藏)의집에 백분을회박가리고 드러온 변장강도사건이 잇섯다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군산서에서는 그동안 범인데포에노력한결과 지난칠일밤에 김희수(金希洙)(三三)라는자를진범인으로데포하엿다더라(군산)

僧侶와姦通

財産家寡婦가 아이까지배여

함남영흥읍 도정(永興邑都井)에 사는김두수(金斗洙)(三)는 녀의고재산이 넉넉함으로 일녀일녀를 다리고 과란업시 지내오든중 지난사월팔일에는 … 을 이기지못하야 영흥안흥사(永興安興寺)에 긔도불공을 드리러간 … 여밧곱딸자이 되엿다는데이말을 드른 부근인사는 안흥사의풍긔문란과 그과부의 비행을비난한다더라(영흥)

貞洞一帶 魔窟探訪 (二)

目不忍見의 乞人合宿所

눈물은원망에다마르고 피는주림에말른산송장

반생반사(半生半死)의 『아편침장이』들의 처참한 살림을 본눈으로 다시한번 눈내일곳은덕한아를격한태평통 이뎡목삼백칠십이번디『거지들의합숙소』이다 합숙소라 하닛가 얼는듯기에는 그래도 무슨사람의

살림사리 나벌려잇는듯 키들리기도 하나실상인즉 남의집뒤마당과 헛간을 리용하야서 양텰조각 헌거적쪽으로 바람과 비를 가리워 노앗스니문도업고 창도업는 캄캄한암흑세계(暗黑世界)가곳 그들의 합숙소 이다 밤과 낫을 분간할수업는거적움속으로 긔어들고 긔어나가는가련한 동포들! 집도업고밥도업고친척도 업스니 그가궁한일신은이거적덕이 속이아니면 부칠곳이업는 것이다 뼈에사모치는 치위를안고 쓰레기통에서쓰레기통에――이집대문에서저집대문으로 유리하며 모과수통에거두어모흔 각종음식 찌기를압압히들고서 그래도 큰거디라고이거적속으로 모혀든다 혹시나운수가 조화서 진고개

쓰레기통 속에서도 미데강이나 맛번한 비빔밥찌기를엇는날은 입이귀까지 찌어져서 『어!오늘은잘먹엇다』! 하며 덜렁덜렁 드러서는그꼴을 보고누가참아눈물을 안흘니겟느냐 ?남가튼데격!남가튼머리를가지고 그들은 엇지하야이가티세상에도 쓸쓸하고 애달분거지의 살림을 하게되얏는가 세상의 컨대를밧는사람 진사람 세상의 가슴에도 피는눈물은잇섯스며 그들의눈에도 눈물은잇섯슬것이다! 그러나 오래동안에 처참한 생애를 싸아오는동안에 눈물은 세상을 원망하기에말러 바리엿스며 피는배주림에 다말라스려저서이제는다만 본능뎍(本能的)으로 먹을것을구하라는 욕심외에는 아모것도모르는돌과가튼사람이되고 만것이다 밤열한시――사람한아도자유로

드나들수 업는죄인들 열고드러서니 마당에는 세사람의거지가 돌려안저서 쏙으려진 남비에다가 무엇을 쓰리고안젓다 자세히 드려다보니 그것은 『죽은개』(犬)이엇다 어듸서잡아왓는지 개한마리를 잡아서개국을쓰리는것이엇다!작란삼아 『허가업시 개를잡나』하엿더니 그자들은 깜작놀라도라보며 『나리는 별것을다참섭을하십니다 죽은개를 어더다가 삼는답니다』하며커의끼리 무엇이라고 숙은숙은한다거적문을들고드려다보니 방바닥에 몃명의 거지는그대로 쓰러저서코를골고잇다그중의 한명은 무엇이라고잠고대를 하며도라누엇다 낫도모르는

어머니나 맛나서하소연이나하는냐? 죽은개를 어더왓다고는 하야낫코도 그래도겁이나서 숙은숙은하는이들의 월홍을무러보니 ▲삼년전부터 거지가되얏다는 리원규(李元圭)(三〇)는경성사람 ▲함경도사투리를쓰는 윤필삼(尹弼三)(二七)은오년전부터이노릇을시작하엿다하며 ▲컨라남도에서올라왓다하는김치삼(金致三)(三九)은재작년부터거지가되얏다한다

휘파람

▲량력섯달금음도차차갓가워온다、그를따라 가차차차하간다▲망년회가 서도처에서망년회상의 회!해마다하는망년회는금년에도역시곳곳이 열니게된다 몃분곳되는 년말상여금으로 처자의설무입 걱정하랴、일년간 미러오든 빗갑흐랴 ▲그우에 다시망년회까지는 월급생활자로서 도저히 여유가업는일이나 그래도망년회는 열려고한다 일년피로를 잇지도못하는애조의 망년회를 그리애쓰고해무엇하나!

創作 젊은敎師 (九)

星海

동료(同僚)인K가 입을 열엇다 『그러케날수를히 아러서 무엇을하오? 할일이업스면 낫잠이나자지!』 영민은 K의말을 못들은데하고 안졋섯다 D는 K가 무렴하게녁이지안는가 념려 하는듯이 말하엿다 『누구가 일부러 세여보랴서 세여보는것이아니라 자연히 생각이나서그런게지요』 몬저 말하든K는 그말에 곳 공명한듯이 『그도그래 나역시 벌서 다섯해가되엿는걸! 그동안에 무엇을하엿는지 나역모르지!』 감탄뎍(感歎的)인소리를하엿다 D는 빙긋우스며 다시말하엿다 『여보게! 그런말슴에부르는거짓말은 그만해두오 내가말해볼가요? 월급타서 밥버리를하엿지! 그리고 어린아이들속혀묘는일을 연구해왓지오 또 연인(戀人)을어덧지오 그리고 자미스러운가뎡을 일우엇지오 무엇이엇재다는말이오?』 K는 이러케는당비슷한 D의말이 자긔의마음을 애속까지쇠집어내노흔듯이 생각하엿다 그러고 빙글빙글우스며 『왜? D군도 연애를 좋하하고 십흔게로군! 내가지금 한말은 그러한의미는아니오 그저 세월이 쉬웁게간다는말이시 별다른의미란업서……』 라말하엿다 영민은 K의하는말이 조곰귀에 거슬리엇다 지금K의한말을 자세히 해석하여보면 K자신은 현상(現狀)에만족한다 그리고 애인과가티 자미스러운 가뎡을 이루엇다 이사회에서라도 성실히 일만잘하면 편안한생활을할수가잇다 이만하면 행복을 가지고라도 비록넉넉지못하여도 굶주릴걱정할수가 잇지아느냐? 그러니자긔는자긔의현상에만족한다 만족한이생활을누구는지만일음습한다하면이것이야말로자긔에게는 큰위협이다 다만두려운것은 이와가튼 자미잇는생활을쌔아서가라고 각일각(刻一刻)으로 죽엄의포장을늘고 갓가워오는시간(時間)문데이다 그러하니 자긔는 쌜니지나간시간이 도리혀 그리웁다는의미엇섯다 K의 하는말가운데에는 그런 의미로해석할것은 업다하드래도 적어도 그말하는얼골과 태도에는분명히 그러한빗이 나타나뵈엇다 영민은 이러케생각하는것이 자긔의신경인지도 알수업다 하면서도 입에서나오랴는말을 참을수는업섯다 그래서 『K씨! 앗가 당신하신말이 똑올치오그러케지내간햇수헤아리는것보다 차라리 낫잠이나자는것이 올켓지오 그러치마는우리가튼사람은 낫잠을자랴도 잠이잘 오지안는데!』 라고 조곰불쾌한얼골로 말하엿다

영민의 성미가 엇더한줄은동료간에도 다알엇던터이라 K는 그대로 이러한말에 대하야는 여러말하지안햇다 이동안에 침묵(沈默)이 그들가운데에 잠간제 속하엿다 우두커니 서로 얼골만바라보다가 D가 무엇을생각한듯이 안졋든의자를 한번들엇다 마루우에 타―ㄱ부드치며 『오늘 일긔도조흔니 술이나 한잔먹세!』하고 말하엿다 다른사람들도 다 그러한것을 속으로 원하고잇섯든것처럼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한잔 하세하고말하엿다 물론 이S보통학교선생들은 하학후나 저녁에 서로모혀서 한잔술을먹엇섯다 이와가티 편벽한S 디방에서 어더볼수업는 자극과 위안을다만하 나의술먹는데에서 어더오든것이엇다 그래서 서로 깃분일이잇던지 불평한일이 잇든지 또는근심되는일이 잇든지하면 반드시 술을먹게된것이엇다 오늘도 서로술을먹어야만니저바릴불평이나근심은업섯스나 엇잿든 영민한사람은 불평스러운얼골로 여러동료를 데하게되엿다 그래서 눈치쌔른D가 또 술수작을낸것이엇다 그러나 영민은아모말도업시 안졋섯다 D는 다시K를 향하야 『여보게 K군! 오늘한잔 내오 자긔집에서 연인과 자미스러운생활을 하는사람이 이러한 째에는 의례히 한잔을내는법일세!……응엇대? ……대답을해야지!』하고 연해재촉을하엿다니 K는 한번 고소(苦笑)하더니 『내라면 내기야하겟지마는 돈만잇스면 술이야 웬연인이나 가뎡이니할것은 업서……어듸가서든지 먹을수잇지안나』 라고말하엿다 『그러면 오늘내가 한잔내지』 하며 이러낫다